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517-7651~5 팩스/512-1225

21세기 전도전략 개발, 훈련, 실천한다

21세기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며,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갈 때이다.

무엇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21세기를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 이자 도전이기에 21세기에 걸맞은 전도전략을 개발하고 훈련하려 한다.

70인 전도단 결단식 오늘 찬양 예배에

70인 전도단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 결단식을 갖고 행진을 시작한다. 70인 전도단의 활동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전도에 관한 강의와 워십, 그리고 실제적인 전도훈련과 실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교육의 일정과 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일시	내용	강사
2월 27일	결단식 -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이종윤
1주/3월 2일	전도의 방법과 전략	김재호
2주/3월 9일	복음제시 - 요약된 복음	김재호
3주/3월 16일	복음제시 - 확대된 복음	장용휘
4주/3월 23일	전도자의 자세	김주아
5주/3월 30일	간증의 활용방법	임진태
6주/4월 6일	질문과 반대의견 다루기, 기도훈련	권상석·유순화
7주/4월 13일	양육의 이론과 실제	원필현
8주/4월 20일	일대일 전도훈련	최병호
9주/4월 27일	전도의 실제	유수영
10주/5월 1일	수료식	이종윤

▶ 교육시간 제 1차/수요 I부 예배 후 (오후 2시 - 오후 4시)

제 2차/수요 II부 예배 후 (오후 8시 30분 - 오후 9시 30분)

또한 70인 전도단 기도후원자는 전도단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전도단원을 위해 매일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며, 매일 공개 보고회 및 기도회에 참석해야 한다.

'94 상반기 장학생 선발

오늘 찬양예배에 장학금 전달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다.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등부 / 김민경 서현아 고은혜 임은선 안상미 변상일 홍석현
- 고등부 / 이종훈 최 읊 신찬규 유혜진 정희진 주미영 전은지 박성희 서현진 김수현 조가연
- 대학부 / 정성국 권오철 이지영 최미현 강일광 이진영 홍진선 오숙영 나소연 임혜경 이주은 박정원

학원선교회 출발 3월 6일에 창립총회

영역별 전략을 개발하려는 각오로 1994년을 새롭게 출발한 선교위원회에서는 학원과 청소년복음화를 위해 학원선교회의 창립 준비로 분주하다. 청소년 선교, 학교생활의 상담과 지도, 미래 지도자를 위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생반 활동 지원과 봉사, 크리스찬 교육자 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원선교회는 각급학교 전·현직 교사와 교수 및 학원 관계 종사자들과 학원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립총회는 다음 주일 (3월 6일) 오후 3시 30분 3층 고등부 교사실에서 가지며 이를 위한 준비 모임이 3월 1일 (화) 오후 7시에 있다.

✚

올해 첫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3월 10일(목) 오후 7시에 2층 집회실에서 '94년 첫 새가족환영회를 가진다. 12월 11일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과 인도자들이 모두 모여 서울 교회 성도된 기쁨을 맛보며 한 가족이 되는 데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 주일 러시아선교합창단 내고



러시아 선교합창단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한국말로 찬양과 간증을 하며 주님을 모르고 지난 날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창세기강해



이 종 윤 (목사 · 당회장)

항상 악한 인간

(창세기 6장 5 ~ 8절)

개혁주의 창설자 요한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을 대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5대 강령 중 첫번째인 '인간의 완전부패'에 대하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그 사실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구절입니다.

1.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종교개혁 당시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자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 에라스무스와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주장한 루터와 그의 후예들인 칼빈과 같은 이들의 주장은 오래동안 대립을 하였습니다. 만일에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혹은 돌아올 경향성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속에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지 자기에게 어떤 선한 요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고 하였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롬4:2)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구원이 요청되는 부패한 존재이고 인간 외부로부터 오시는 구세주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창세기 1장의 사상과 대립되는 귀절안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와서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라고 하신 것은 일관성 없는 것

은 아니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5).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악을 품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는 곧 살인자며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자라고 하였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곧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외형적이거나 보다는 내적인 것으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2. 죄의 편만함

마음의 죄는 생각과 계획과 모든 부분을 오염시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전체는 죄에 물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렘17:9)라고 하였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시5:9), "저희들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시14:3)라고 인간을 표현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이하에서 사도 바울도 인간의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요7:19). 죄로 인해 마치 소경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된 길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3.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만 생명의 빛이 비추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

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매 순간 반복하고 또 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 종노릇하던 항상 악한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까지 온 몸과 마음에 온전히 퍼져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패하고 악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 날에 대한 새로운 은혜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8절).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여러번 나옵니다만 여기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말을 영어 성경에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만이 우리 민족과 개인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에 빠진다 해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혜택을 누립니다. 주님을 내마음의 왕좌에 모셔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하나님의 아픔

사랑은 아픔이다.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앞에 놓고 자신의 무력을 애통해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살인강도에게 끌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쩔수 없어 가슴만 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랑한 것만큼 아픔은 클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앓는 이 아픔을 차라리 고통이라 할까. 불신과 배신, 저주와 죽음의 고통 속에 사랑의 보혈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자기의 살을 깎고 뼈를 마르게 하는 아픔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갈보리산 적토박이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고통의 응어리가 아닌가.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아픔을 체험하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 순례자 캠페인 ① - 바른 예배드리기 ◆

1. 5분 일찍 오기
2. 앞자리부터 앉기
3. 먼 곳부터 주차하기
4. 드리고 받는 예배
(예배순서와 그 의미)
5. 가정예배 드리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제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인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단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한 인간의 삶이 불행해 질 수도 있고 이는 곧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적들을 성경은 간음, 이혼, 서로의 중오, 무책임한 남편,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등 몇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전할 수 있으며 함께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가정예배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이며 마무리 짓는 자물쇠가 된다.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는 함께 모이는 시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들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함께 찬송하되 어린이들이 찬송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기도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이 재미없는 지루한 예식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는 지속성의 문제이다. 처음 몇일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서로간에 격려와 권고가 필요하다. 끈기와 인내는 처음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있어서는 꼭 기억해야 할 점이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재미는 맛본 사람만이 안다. 진수성찬이 앞에 놓여 있어도 숟가락을 들고 먹는 사람만이 맛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 친정나들이 ◆

L. A. 지진, 바로 그 날에

이영옥 (집사 · 제 10교구)

연초가 되면 특별 휴가를 얻어 친정 나들이를 가곤 한다. 이는 사랑하는 남편의 회생 · 취사, 세탁 등 가사를 홀로 전담해야 하는 - 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부모님이 계신 친정이 나성(L.A.)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친정 나들이는 좀 요란(?)했다. 내가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공터마다 시민들이 마치 캠프는 것처럼 여진을 피해 나와 있었으나 지진 몇시간 후라서인지 전혀 실감하지 못했는데 그날 밤에는 마치 튜브를 타고 파도를 넘는듯한 지진을 몸소 겪으면서 내게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 집은 책장의 책이 쏟아져 내린 정도의 가벼운 흔적 뿐이었으나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남동생 집 주변은 새로 지은 집들이 마구 갈라지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마치 발이 달린듯 이리저리 구르고 집기들이 모두 부서지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사이렌이 울리니 동네 개들이 동시에 짖어대고 전기와 가스와의 물의 공급이 중단되고 곳곳에 유리파편이 튀고... 새벽에 지진이 났으니 암흑 속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과 아우성으로 아침을 기다렸을 것이다.

경관 좋은 곳에 원형으로 설계하여 사방 어디를 둘러 보아도 아름다운 숲과 물을 볼 수 있도록 호화주택을 짓고 살던 이들이 그 집을 짓는데 사용한 육중한 고급 건축자재들로 인해 온가족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그리고 아끼고 귀중히 여기던 것들이 한 순간에 쓰레기더미로 화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세상 끝날 심판주로 오시마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했다. 아울러 이 세상 기준에 의한 값진 것, 귀한 것의 소유의 무상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이 뜨거워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날, 지진이 오듯 예고 없이 닥칠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

◆ 월요일의 일기 ◆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

이운진(집사 · 중등부 교사)

맛벌이 부부인 우리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충분치 못함이 안타깝다. 얼마 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중등부 집회도 마치 고서는 모처럼 남편과 함께 이곳 저곳을 둘러 집에 오니 5시 10분 전이었다. 찬양예배에 가자는 남편의 권유를 거절하고 아이들과 저녁식사도 함께 하며 시간을 나누고 싶으니 혼자 다녀오라고 했더니만 결국 남편도 그냥 앉아버리는 것이었다. 그 주일 오후는 오랫동안 아이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대화도 하며 텔레비전도 보고 잠도 푹 잤으나 마음은 몹시 불편했다.

월요일 아침, 일터에서 새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L집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찬양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내게 나누어 주며 별 일 없었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또 오후에는 H집사가 주일 저녁에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며 남편을 직접 찾아왔더라. 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형제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총 가운데 교제케 하심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얼마간 생활하였다. 이따금 밀려오는 이국 땅에서의 견잡을 수 없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였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 최근 지진 소식을 듣고 문안 전화를 했더니 지진의 공포로 절규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형제도 있었고, 집이 반파되어 차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도 있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관대 지구 이 편, 저 편에서 서로 교통케 하시며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월요일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진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성도로 삼아주신 것처럼, 만민이 이 복음을 들어 온 인류가 서로 교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가 바르게 헌신하게 하소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전혀 새로운 감격으로 고백해 보옵나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 학원선교회 출발을 준비하며 ☐

"심고 물 주는 일"

오정수 (장로 · 선교위원장)

몇해 전, 불우한 자신의 가정환경을 비판한 고등학생 하나가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날이 마침 아버지 날이었기 때문에 작문 시간에 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그 학생의 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택시운전기사로 밤늦게 그나마 술이 취해 들어오기가 일쑤였고 어머니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집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는 무작정 아들을 심히 꾸짖곤 했습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나이 어린 아들은 고민하다가 괴로운 현실을 잊어 보려고 마침내 환각제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많은 유해환경의 범람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되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한 세대에서 내 자녀만 보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내 자녀 하나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을 해친다는 유해환경을 일일이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라나는 아이들의 행동반경에 울타리를 치거나 쫓아다니며 눈을 가려 보지 않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때,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갈 것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스스로 판단케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인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분이나 학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미래 세계의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을 천국시민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을 결신케 하실 하나님 앞에서 심고 물 주는 일에 한 마음 되어 봅시다.

실업인 선교회 총회 속회

임원 선임, '9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실업인 선교회는 2월 22일(화)에 총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총회의 속회로서 주요안건은 임원선임과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었다. 예배와 회의 후 실업인 선교회의 자문위원인 김상철 집사가 「고난의 뜻과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으며, 우리교회 글로리아 합주단의 찬양과 함께 화기에애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교회의 모든 짐을 지자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밤이었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70인 전도단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소서
3. 주님의 남은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4.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브니엘

하나님의 열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유 난히도 춥고 눈이 많았던 겨울. 지구촌 곳곳에 냉해와 설화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지진과 홍수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의 냉기류가 우리들 가슴을 더욱 싸늘하게 했다. 지난 19일이 우수, 다음 주일은 별새 경칩이다. 인간사와는 상관없이 계절은 어김없이 제 갈길을 가고 있다. 얼어붙은 대지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따스한 햇살과 포근한 봄비 뿐이다. 죄악과 불의와 음모와 분쟁,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동토(凍土)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우수의 봄비처럼 포근히 내려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본연의 모습대로 양심과 공의가 되살아나고 곳곳에 꿈과 희망에 찬 삶의 찬가가 「봄의 소리 왈츠」되어 울려 퍼지길 기도한다. 죽은 것같은 매마른 가지에서 새 움이 돋고 풍광 열었던 강물이 풀리듯 겹겹이 단았던 겨울의 창을 열고 자아와 이기의 빗장을 풀어 생명이 대동하는 봄의 아침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자.

〈圭〉



* 3월의 기도 *



이토록 많은 것을 제게 주신 주님,
한가지 더 주시기를 비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축복이 나날이 넘쳐
저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동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장이 되게하소서.



- 조지 허버트 -

목회자동정

이종윤 목사는 2월 27일(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교회당에서 드리는 교역자협의회 주최 3·1절 75주년기념예배에서 설교하며, 28일(월) 오전에는 보성여고 교사수련회를 인도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